

〈춘향전〉의 사랑의 현대시적 변주

김 동 하*

I. 서론

1. 연구목적

한국의 문학 작품 중 〈춘향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작품으로서 선택된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지닌 이야기였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하여 대중적으로 향유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본의 수가 140여 종에 달하며, ‘설화에서 판소리로, 그리고 소설에로의 변모과정’¹⁾을 거쳐 살아 숨쉬는 모습의 이야기로서 전해져 왔다. 그리고 현대에는 장르를 넘나들어 시, 연극, 영화, 드라마, 오페라, 뮤지컬 등의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게임이나 만화, 웹툰 등에서도 〈춘향전〉의 인물이나 서사를 차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춘향이가씨 선발대회’와 같은 행사나 ‘춘향장’, ‘월매집’ 등의 상호에도 쓰일 정도로 〈춘향전〉은 우리의 삶에 여러 모습으로 깊숙이 존재한다.

〈춘향전〉이 이렇게 시대와 장르를 초월하여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는 고전(古典)이기 때문이며, 그리고 생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고전문학은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이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문학적인 오작교(烏鵲橋)로서 우리의 생각과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살아 숨쉬는 예술이다. 시대를 걸쳐서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함으로써 오랜 시간과 문화를 축적해온 작품은 우리 민족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에도 끊임없이 생동·변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 졸업

1) 김동욱, 「춘향전 이본고(속)」, 『춘향전사본선집1』, 명지대, 1977, pp.1~3.

화하고 있다. 이러한 고전작품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는 민족의 보편적 가치관과 감성과 조화롭게 아우러진다. 또한 작품이 현대적으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민족 특유의 정서와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적절히 제공하기 때문에 고전문학은 현대에 의미 있게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²⁾

한편 고전에는 ‘오래된’이라는 글자 그대로의 시각과 ‘의미 있는’이라는 가치를 반영한 시각이 함께 투영되어 있다. 따라서 고전은 오랜 시간을 전해 내려오면서 고전이 내재하는 가치를 보이는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전을 다룰 때 이러한 시각에 경도되면 고전에 일종의 정전성(正典性)을 부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전은 고정된 가치를 지닌 폐쇄적인 작품으로 읽힐 위험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문학은 고정되고 영구불변한 가치의 반영물이 아니다. 한 작품이 고정되고 영구불변한 가치를 담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면, 그 작품의 수용자는 수동적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감상하게 되며 그 해석과 감상과정은 내재된 가치의 단순한 답습에 머무르게 된다. 문학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역사성이다. 문학은 생동적으로 존재하며 작품의 가치는 역사와 시대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다. 전승되어 오는 고전문학은 그것이 수용되는 당대의 기대지평³⁾ 안에서 잠정적이고 유동적으로 해석된다. 모든 텍스트는 최소한 무의식적인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읽는 수용자와 그것이 읽히는 시대에 의해 다시 쓰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고전적 가치 또는 작품의 특정적 가치는 시대를 초월하여 가치관과 감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공유 양식이 획일적이지 않다는 것이며, 시대적 배경에 따라 고전작품의 향유자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에서 가치평가⁴⁾를 하게 되고, 나아가 작품을 변주하는 생산적 읽기의 모습을 보인다는

2) 전영선, 「고전소설의 현대적 전승과 변용」,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참조.

3) 독자가 하나의 새로운 문학 작품을 대할 때에는 자기가 과거에 읽었던 다른 작품 또는 독자 자신의 체험이나 관점 등에 따라 새로운 작품이 대략 어떠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야우스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의 범위와 그 한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지평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리하여 기대의 지평선은 수용자의 이해를 구성하는 요소들, 즉 선험적이거나 체험적인 지식, 거기서 발생하는 기대의 한계가 포함된다. (박찬기, 「문학의 독자와 수용미학」, 『수용미학』, 고려원, 1992, p.28.)

4) 선행 텍스트는 언제나 다의적이다. 선행 텍스트에 대한 독법은 독자의 가치관이

것이다.

그리하여 〈춘향전〉은 대표적인 고전이다. 〈춘향전〉은 사랑이라는 주제의 보편성과 당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저항을 다룬 사회성의 측면, 서사적·극적 구성을 조화롭게 완결한 구조미학적 측면, 판소리 사설의 담화 기법과 이전 시기까지의 수사학적 기법을 온축한 문체 미학의 측면 등 다양한 층위에서 고전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⁵⁾ 이렇게 〈춘향전〉은 하나의 정전으로서 보편적인 가치와 문학성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변주한 ‘춘향전들’은 〈춘향전〉의 보편적·고전적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다양하고 생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펼치고 창작하는 가능성의 발현이다. 작자는 수용자로서 고전인 〈춘향전〉을 읽으면서 의미와 가치를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감상하여 그것을 변주시킴으로써 〈춘향전〉에 대한 대화적 관계를 맺어나가는 적극적 향유자의 모습을 보인다. 적층문학으로서의 〈춘향전〉과 ‘춘향전들’은 수많은 수용자와 적극적 향유자들에 의해서 전승되어 온 살아 숨쉬는 고전문학이다. 그리하여 현대에 〈춘향전〉은 하나의 종국적으로 완결된 명작으로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분야를 넘나드는 현재진행적인 생동적인 명작으로 전승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춘향전〉의 보편적·고전적 가치인 〈춘향전〉의 사랑이 현대적으로 장르를 넘나들며 전승되고 변주된 양상으로서의 현대시로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사랑은 하나로 정의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극적인 서정이다. 수많은 언어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이러한 극적인 서정을 오히려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담아냄으로써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시 장르는 어떻게 〈춘향전〉의 사랑을 변주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나 당대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70년대는 1970년대의 독법의 체험을 지닌다. 작품이란 독자의 의식이 지향적 상관자가 될 때 비로소 존재 의미를 갖는다. 작품의 존재양식은 진술 주체와 수용 주체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데 있다. (김준오,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지성사, 2000, p.185.)

5) 최기숙, 「춘향전의 고전적 가치와 미학」, 『춘향전 연구의 과제와 방향』, 국학자료원, 2003, pp.257~258.

2. 연구방법

〈춘향전〉의 주제는 사랑, 저항, 정절, 신분상승 등 다양하다. 따라서 〈춘향전〉을 보는 시각도 여러 가지인데, 하나의 주제 요인을 중심으로 〈춘향전〉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둘 이상의 주제 요인을 다원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적 변주 양상 역시 〈춘향전〉이 보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소재로 하여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춘향전〉을 변주한 양상 중에서 희곡이나 시나리오 등의 장르는 비록 원전에서 다소간 변용이나 일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전의 근본 플롯 구조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시 장르의 경우에는 플롯의 과감한 생략 또는 강한 일탈과 함께 특정 장면의 구체화가 나타나는 등의 변용이 이루어진다.⁶⁾ 시인은 〈춘향전〉의 플롯을 단순히 시적 표현으로 옮기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원전의 특정 장면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시인 스스로의 문맥으로 전이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다. 춘향의 목소리나 춘향이 처한 상황을 소재로 하여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원전 〈춘향전〉은 시의 분위기와 주제를 담아내는 데에 기층적 차원의 의미를 구성한다.

〈춘향전〉이 변주되는 양상으로서의 현대시는 다양하다. 숫자로는 대략 80여 편에 이르는 데, 이 중에서 복효근의 〈춘향의 노래〉, 서정주의 〈다시 밝은 날에〉, 박재삼의 〈바람 그림자를〉, 김영랑의 〈춘향〉, 서정주의 〈춘향유문〉, 이수익의 〈단오〉, 김소월의 〈춘향과 이도령〉을 통해 〈춘향전〉을 바탕으로 한 사랑의 현대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논의의 방향은 우선 2장에서 〈춘향전〉의 서사와 주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특히 사랑에 초점을 맞춰본다. 〈춘향전〉은 사랑의 이야기이며, 다른 주제 요인들 역시 원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춘향이 변사또에게 저항하고 이도령을 향한 정절을 지키는 것은 결국 춘향이 이도령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판단에서이다. 그리고 〈춘향전〉이 현

6) 노현중, 「현대시에서 나타난 '춘향' 모티프의 수용 양상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참조.

대로 전승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 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춘향전〉의 사랑이 변주된 모습을 본다. 크게 네 가지 모습으로 분류하였는데, 분류의 기준은 〈춘향전〉의 장면을 구체화한 사랑의 모습과 〈춘향전〉의 사랑 모티프의 차용이다. 춘향과 이도령의 영원한 사랑을 예찬하는 모습, 춘향이 떠난 이도령을 기다리는 사랑의 모습, 고난을 견디는 춘향의 절절한 사랑의 모습을 그린 현대시들과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모티프로 하여 사랑의 감정을 노래한 현대시들을 살펴 보겠다.

첫 번째 모습은 복효근의 〈춘향의 노래〉를 통해 살펴보고, 두 번째 모습은 서정주의 〈다시 밝은 날에〉와 박재삼의 〈바람 그림자를〉을 통해 살펴 보겠다. 세 번째 모습은 김영랑의 〈춘향〉과 서정주의 〈춘향유문〉을 통해 살펴 보고 네 번째 모습은 이수익의 〈단오〉와 김소월의 〈춘향과 이도령〉을 통해 살펴 보겠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논의를 요약적으로 정리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II. 〈춘향전〉의 사랑과 현대적 전승

1. 〈춘향전〉의 서사와 주제

〈춘향전〉의 서사와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전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열녀춘향수절가〉를 〈춘향전〉의 원전으로 설정한다. 그 이유는 〈열녀춘향수절가〉가 〈춘향전〉의 대표적인 이본(異本)으로 통용되고, 가장 대중적이며 개화기 이후 〈춘향전〉을 변주하는 데의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 〈춘향전〉은 〈열녀춘향수절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춘향전〉의 서사는 (1) 남원에서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 - (2)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과 결연 - (3) 부친의 승품으로 인한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 - (4) 춘향이 변사포의 수청을 거부하고 겪는 고난 - (5)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되어 춘향을 구원 - (6) 춘향과 이도령의 재회와 행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다시 정리하면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 - 이별 - 재회로 나눌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그려지는 것이다.

〈춘향전〉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다. 다시 말해 〈춘향전〉은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핵심적인 축으로 하여 사건과 갈등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춘향전〉의 서사에서 중심적 갈등은 춘향과 이도령 대 변사또의 갈등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춘향의 신분과 당대의 신분위계적 사회상에 기인한다. 춘향은 성참판의 서녀이지만 되기 월매의 딸이기 때문에 천한 신분이다. 그리고 사회상은 기생이 양반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 신분제적 질서이다. 그러는 한편 당대는 조선 후기였기 때문에 신분제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고 많은 동요와 신분 간의 이동이 일어나던 시대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춘향전〉의 갈등은 봉건적 신분제를 강요하는 부정의한 사회와 이를 벗어나고자 하는 근대적 가치관의 대립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춘향전〉의 갈등 구조는 사랑의 문제, 정절의 문제, 신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사랑의 문제에서 보자면 〈춘향전〉의 갈등 진행은 춘향이 이도령과의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춘향의 신분 문제로 인해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춘향은 사랑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신분적 약점을 사랑에 대한 의지로 극복해나간다. 우선 춘향은 처음 이도령을 만날 때에 자신을 기생이 아니라 여염집 여자로 봐 줄 것을 요청하며 사랑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도령과 이별하고 변사또가 나타나서 신분질서를 이유로 수청을 강요했을 때 춘향은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강한 사랑의 의지로 이를 극복한다. 마지막으로 암행어사가 나타나 자신이 이도령임을 알리지 않고 수청을 요구했을 때 춘향은 거절한다. 춘향은 이도령이라는 사랑의 상대와의 사랑을 끝까지 수호했고 마침내 이를 이루는 것이다.

〈춘향전〉의 갈등 구조를 정절의 문제에서 보자면 〈춘향전〉은 춘향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정절을 수호하며 마침내 열녀가 되는 구성이다. 춘향은 이도령을 만나기 이전부터 정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도령과 만난 이후에는 이도령을 향한 정절을 지킴으로써 변사또로 대표되는 강요를 이겨내고 열녀가 된다. 정절이라는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춘향전〉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분의 문제에서 갈등 구조를 보자면 〈춘향전〉은 춘향이 신분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신분 상승을 실현하는 구성이다. 춘향이 처음 이도령을 만났을 때, 이도령이 춘향을 기생으로 대하자 춘향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도령이 춘향에게 글을 잘한다고 청했을 때에야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시작되었으며 이도령에게 기생이 아니라 아내로서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도령과 결연하였다. 이후 이도령이 떠나고 변사또가 수청을 강요했을 때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으며, 마침내 암행어사가 된 이도령의 정실부인이 됨으로써 신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신분의 문제에서 본 〈춘향전〉에는 조선 후기에 민중의 신분 상승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을 이루는 춘향의 모습, 열녀로서의 춘향의 모습, 이도령의 정실부인이 됨으로써 신분 상승을 실현하는 춘향의 모습을 통해서 〈춘향전〉은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춘향전〉의 주요한 주제 의식들인 서민의 저항, 정절의 가치, 신분의 해방은 작품을 향유하는 사람들과 작품이 향유되는 시대에 맞게 상호작용하여 끊임없는 재해석과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 전승되었다. 무엇보다도 〈춘향전〉의 중심 주제인 사랑의 정서는 순수성과 휴머니티를 바탕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공감되고 있다. 춘향의 사랑과 이별, 고난과 구원은 밝음과 어둠의 순환적 교체를 보이면서 인간적인 삶의 본질을 보여준다. 시련을 겪고 이겨냄으로써 성숙해지고 숭고해지는 춘향과 사랑의 아름다움은 민족의 정서와 의식과 함께 아우러져서 이어져오는 것이다.

2. 〈춘향전〉의 현대적 전승 요인

〈춘향전〉은 이야기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춘향전〉이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모습이 아니라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모습으로 변주되면서 시대를 전승해왔기 때문에 작품 속에는 우리 민족의 문화와 삶이 통시적으로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판소리로 향유되었기 때문에 대중들이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었고, 이에 기반한 판소리계 소설로서의 〈춘향전〉 역시 작품의 내용과 의미가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용미학적으로 보았을 때, 〈춘향전〉은 그 때, 그 때의 사회·문화적 요건에 따라 기대지평의 융합 및 전환을 통해 새롭게 수용되는 작품⁷⁾이

7) 김석배, 「춘향전의 지평 전환과 후대의 변모」,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1993, p.432.

라고 말할 수 있다. 〈춘향전〉의 수용자가 단순히 작품을 소비적으로 향유한 것이 아니라, 원전의 이야기를 생동적으로 끊임없이 재창조하는 방식으로 생산적인 향유를 하였기 때문에 작품은 개방성을 띠게 되어 현대적으로 전승되는 원텍스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품의 개방성은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춘향전〉은 어떻게 현대적으로 전승되는 원텍스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그 요인은 〈춘향전〉의 구성과 인물, 주제에 담긴 다면성에 있다.⁸⁾

1) 구성의 다면성

〈춘향전〉의 구성은 전형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지닌다. 우선 〈춘향전〉의 플롯은 (1)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 - (2)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 (3)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 - (4) 변사또의 수청 요구에 대한 춘향의 저항과 시련 및 이도령의 어사출두 - (5) 춘향과 이도령의 재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플롯은 소설의 전형적인 구성인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기대지평의 융합 및 전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한편 〈춘향전〉은 구성의 개방성을 지닌다. 기본적으로 판소리로 향유되기 시작되었으므로 판소리의 특징인 부분의 독자성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의 각 부분이 향유자와 향유되는 시대에 따라 첨가되거나 생략되며, 변형되기도 하는 것이다. 결국 전형적인 모습의 구성으로 향유자로서의 대중들에게 공감되고, 각 부분의 개방성으로 생동적인 변주가 가능한 것이다.

2) 인물의 다면성

〈춘향전〉의 인물들이 다면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춘향전〉이 현대적으로 재창조되거나 변주되는 전승 양상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우선 주인공인 춘향은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성격이 발전되는 다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춘향은 ‘순수하고 발랄한 소녀의 모습’에서 시련을 겪으면서 ‘윤리적이고 의

8) 김주희, 「〈춘향전〉의 현대적 변용과 교육적 활용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14~15.

지적인 여인의 모습’을 보인다. 변사또의 수청 요구에 저항하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시련을 겪어내는 여인의 모습’과 ‘부조리한 사회에 도전하는 민중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춘향의 다면성은 기생으로서 설정된 신분적 제약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춘향이 보이는 ‘기본적으로 기생으로 설정된 춘향’과 ‘기생이 아니하고자 하는 춘향’의 다면성은 〈춘향전〉의 서사와 갈등이 진행되는 근본적인 동력이 되고, 이것은 다시 신분적 제약과 인간적 해방 사이의 갈등에서 시련을 겪는 춘향의 면모를 다양하게 표현하게끔 한다.

이도령 역시 다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도령은 춘향을 사랑하고 민중을 동정하며, 변사또로 대표되는 부조리한 권리를 징벌하여 결국에는 춘향과의 사랑을 이루게 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는 한편 아버지의 상경으로 춘향과 이별하게 되는 장면에서 양반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이유로 들어 춘향을 버리려 하는 모습이 보이며, 질체절명의 시련을 겪는 춘향에게 일부러 어사임을 숨기고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장면에서 춘향의 정절을 시험하려 하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수용자와 시대는 필요에 따라 인물들이 지니는 다면성을 적절히 변화시킨다. 다면적인 모습을 동시에 구체화시키기도 하고, 일부 모습을 강조하여 확대할 수도 있으며 또 다른 일부의 모습을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양상의 유동성을 확대 적용하여 다면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물들에게 전혀 새로운 모습을 부여하기도 하며, 평면적인 인물로 설정된 변사또 등의 인물들에게도 기존에 설정된 모습을 변화시키거나 다른 모습을 추가적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3) 주제의 다면성

구성과 인물의 다면성은 주제를 풍부하게 만드는 데에 기여한다. 〈춘향전〉에 나타나는 주제는 크게 사랑, 정절, 신분상승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차원의 주제에서 다면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⁹⁾

우선 사랑의 차원에서 〈춘향전〉의 주제는 ‘유교적 사랑’과 ‘자유연애적 사

9) 김수이, 「춘향전에 나타난 가치관의 이중성」, 『불멸의 춘향전』, 청동거울, 1999, p.78.

랑'의 다면성을 보인다. 정절의 차원, 바꾸어 말해서 가치관의 차원에서는 '정절과 열녀의 모습을 중요시하는 봉건적인 가치관'과 '인간적 해방의 근대적 가치관'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분의 차원에서는 <춘향전>은 '사랑을 이룸으로써 신분을 상승하고자 하는 기존 신분 질서에서의 욕망'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평등사회의 지향'이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춘향전>이 담고 있는 주제가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것에 더하여, 각각의 주제가 또 한 번 다면성을 지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춘향전>의 주제는 넓은 범위성을 띤다. 그리고 넓은 범위성은 여러 가지 양상의 변주가 이루어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III. 현대시적 변주 양상

1. 영원한 사랑 노래 - 복호근 <춘향의 노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춘향전>에 나타난 춘향과 몽룡 역시 그러했다. <춘향전>의 사랑이 현대시으로써 변주된 양상 중에서 우선 춘향과 몽룡의 영원한 사랑을 그려낸 양상을 복호근의 <춘향의 노래>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리산은
지리산으로 천 년을 지리산이듯
도련님은 그렇게 하늘 높은 지리산입니다

섬진강은
또 천 년을 가도 섬진강이듯
나는 땅 낮은 섬진강입니다

그러나 또 한껏 이렇지요
지리산이 제 살 속에 낸 길에
섬진강을 안고 흐르듯
나는 도련님 속에 흐르는 강입니다

섬진강이 깊어진 제 가슴에
지리산을 담아 거울처럼 비춰 주듯
도련님은 내 안에 서 있는 산입니다

땅이 땅이면서 하늘인 곳
하늘이 하늘이면서 땅인 자리에
엮여 가는 꿈
그것이 사랑이라면

땅 낮은 섬진강 도련님과
하늘 높은 지리산 내가 엮는 꿈
너나들이 우리
사랑은 단 하루도 천 년입니다

- 복효근, 〈춘향의 노래〉 전문

〈춘향의 노래〉는 춘향을 화자로 내세워 이몽룡(도련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특히 지리산과 섬진강의 비유를 통해 사랑의 영원성을 효과적으로 이미지화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작품을 상세하게 분석해보자면 우선 1연에서 도련님을 지리산으로 비유하고 있다. 지리산은 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리산이듯이 도련님 또한 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영원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그러한 도련님에 대해 작품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경어체를 통하여 하늘 높이 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연에서는 화자에 대한 비유가 나타난다. 1연과 유사한 방식으로 화자는 자신을 섬진강으로 비유하여 천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영원성을 노래한다. 또한 하늘과 땅의 대응을 통해 조화로운 형상화가 이루어지며 도련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1, 2연에서 화자와 도련님의 비유가 이루어졌다면 3, 4연에서는 그들의 관계가 그려진다. 실제로 지리산은 섬진강을 두르고 섬진강은 지리산을 비춘다. 지리산이 섬진강을 안고 흐르듯 화자는 도련님 속에 흐르고 섬진강이 지리산을 거울처럼 비추듯 도련님은 화자 안에 선다. 이렇게 화자와 도련님은 조화롭게 일체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5, 6연에서는 3, 4연에서의 조화가 심화되어 구분조차 없는, 완전한 합일의 모습을 보이며 영원한 사랑이 노래된다. 땅이 땅이면서 하늘인 곳과 하늘이 하늘이면서 땅인 자리는 화자와 도련님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같은 공간이 된다. 섬진강과 지리산, 지리산과 섬진강이 조화롭게 아우러지는 데에서 사랑이 엮인다. 그리고 마침내 6연에서 둘은 하나가 된다. 하늘인 도련님은 땅이 되고, 땅인 화자는 하늘이 된다. 둘을 전도시켜서 표현함으로써 둘은 구분이 없어지고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천년의 영원을 이루게 된다.

2. 기다림의 사랑 노래 - 서정주 〈다시 밝은 날에〉, 박재삼 〈바람 그림자를〉

이별 또한 사랑이다. 이 역설적인 상황과 표현은 사랑의 의미가 보다 깊고 풍부함을 나타낸다. 함께 있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때,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때만이 사랑의 시간이 아니다. 이별했을 때의 공허함과 아픔, 외로움과 기다림 또한 사랑이다. 언뜻 보기에는 사랑의 반대처럼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다. 〈춘향전〉의 춘향과 몽룡 또한 기다림의 사랑을 하였다. 서정주의 〈다시 밝은 날에〉와 박재삼의 〈바람 그림자를〉은 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신령님,
 처음 내 마음은 수천만 마리
 노고지리 우는 날의 아지랑이 같았습니다.
 번쩍이는 비늘을 단 고기들이 해엄치는
 초록의 강 물결
 아우러져 날으는 아기구름 같았습니다.

신령님,
 그러나 그의 모습으로 어느 날 당신이 내게 오셨을 때
 나는 미친 회오리바람이 되었습니다.
 쏟아져 내리는 벼랑의 폭포,
 쏟아져 내리는 소나기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령님,
바닷물이 작은 여울을 마시듯
당신이 다시 그를 데려가시고
그 휘~한 내 마음에
마지막 타는 저녁 노을을 두셨습니다.
그러고는 또 기인 밤을 두셨습니다.

신령님,
그리하여 또 한번 내 위에 밝는 날
이제
산골에 피어나는 도라지꽃 같은
내 마음의 빛깔은 당신의 사랑입니다.

- 서정주, 〈다시 밝은 날에〉 전문

작품은 신령님을 호격으로 시작하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1연에서 화자인 춘향의 마음은 순수하고 평화롭다. 화자가 몽룡을 만나기 전인 처음 마음은 아지랭이, 초록의 강 물결, 아기구름과 같이 평화로운 봄날을 연상하게 하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시어들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2연에서 화자의 마음은 걱정애 휩싸인다. 신령님은 몽룡이고 그의 모습이 된다. 그만큼 사랑의 상대인 몽룡은 화자인 춘향에게 절대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의 모습으로 신령님 당신이 춘향에게 오고 사랑이 시작된다. 춘향의 마음은 회오리바람, 벼랑의 폭포, 소나기비처럼 걱정적이고 열정적이게 되었다. 1연과 대비적으로 동적인 느낌의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다시, 3연에서 화자는 상대와 이별하게 된다. 바닷물이 작은 여울을 마시듯 이별은 사랑을 마셔버리게 되고, 춘향은 휘~하게 공허히 된다. 강력한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화자의 마음은 그리움에 애태우는 마지막 타는 저녁 노을이 되고, 기인 그리움과 외로움의 이별의 밤이 된다.

하지만 화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연에서 또 한번 내 위에 밝는 날을 상정하게 된다. 재회의 시간, 도라지꽃 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별의 외로움은 구원의 사랑으로 심화되어 신비적 빛깔과 함께 시적 승화를 이루게 된다.¹⁰⁾

이렇게 〈다시 밝은 날에〉는 만남 이전-시작-이별-재회의 기다림인 사랑의 과정을 시각적·청각적 이미지의 시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표현하였고, 이별의 상황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며 끝내는 것이 아닌 재회의 기다림으로 아름답게 승화하여 깊은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다.

〈다시 밝은 날에〉와 유사하게 이별과 재회를 그려내는 결말을 가지는 작품으로서 박재삼의 〈바람 그림자를〉을 함께 볼 수 있다.

어지간히 구성진 노래 끝에도 눈물나지 않던 것이 문득 머언 들판을 서성이
는 구름 그림자에 눈물져 올 줄이야.

사람들아 사람들아
우리 마음 그림자는, 드디어 마음에도 등을 넘어 내려오는 눈물이 아니라
말가.

- 문득 李道令(이도령)이 돌아오자, 참 가당찮은 세월을 밀어버리어, 天地(천지)에 넘치는 바람의 화안한 그림자를 春香(춘향)은 눈물 속에 아로새겨 보았을 줄이야.

- 박재삼, 〈바람 그림자를〉 전문

〈바람 그림자를〉의 마지막 연에서 춘향과 이도령이 재회하기 이전까지 느꼈을 것인 기다림과 외로움, 고난과 아픔은 참 가당찮은 세월이라는 표현과 대시(-)의 사용으로써 대담하게 간결화되어 있다. 간결화된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을 관통하는 춘향의 눈물로 표현되는 어떠한 정서가 제시된다.¹¹⁾ 그 정서는 바로 사랑이다. 외로움 속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서성이는 구름 그림자인 이도령과의 재회, 온갖 고난 속에서도 일편단심으로 기다림의 눈물을 흘리던 춘향의 화안한 바람 그림자인 이도령과의 재회는 그 간의 그리움과 아픔을 가당찮게 만들어버린다. 마음임을 비취주는 그림자는 눈물이자 사랑이다. 이별한 사랑을 기다린 끝에 다시 만나는 감정의 승화는 사랑의 심화된 완성을 보여줄 것이다.

10) 송숙자, 「춘향전의 현대적 변용과 그 의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10.

11) 김홍규, 「춘향, 천의 얼굴」,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1993, p.246.

3. 절절한 사랑 노래 - 김영랑 〈춘향〉, 서정주 〈춘향유문〉

사랑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장애물은 강력하게 사랑을 위협한다. 강한 시련에 마주한 사랑은 다양한 모습과 결말을 보인다. 시련을 끝내 견뎌냄으로써 사랑이 실현되기도 하지만, 시련에 결국 무릎을 꿇고 이별 또는 사별로 사랑이 끝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공통되는 점은 시련에 닥친 사랑은 절절함을 보인다는 것이다. 절절한 모습을 보이면서, 고난을 극복할 수도 있고 끝내 좌절할 수도 있다. 사랑을 수호하기 위해서 시련과 투쟁하는 모습이나 투쟁 끝에 좌절이 보이는 순간 유언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크나큰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한다. 이 절절한 사랑의 모습을 그린 현대시로서 김영랑의 〈춘향〉과 서정주의 〈춘향유문〉을 감상해볼 수 있다.

큰 칼 쓰고 옥(獄)에 든 춘향이는
 제 마음이 그리도 독했던가 놀래었다
 성문이 부서져도 이 악물고
 사또를 노려보던 교만한 눈
 그 옛날 성학사(成學士) 박팽년(朴彭年)이
 오불지짐에도 태연하였음을 알았었니라
 오! 일편 단심(一片丹心)

원통코 독한 마음 잠과 꿈을 이뤘으랴
 옥방(獄房) 첫날밤은 길고도 무서워라
 서름이 사무치고 지쳐 쓰러지면
 남강(南江)의 외론 혼(魂)은 불리어 나왔느니
 논개(論介)! 어린 춘향을 꼭 안아
 밤새워 마음과 살을 어루만지다
 오! 일편 단심(一片丹心)

사랑이 무엇이기
 정절(貞節)이 무엇이기

그 때문에 꽃의 춘향 그만 옥사(獄死)한단말가
 지네 구렁이 같은 변학도(下學徒)의
 흉칙한 얼굴에 까무러쳐도
 어린 가슴 달콤히 지켜주는 도련님 생각
 오! 일편 단심(一片丹心)

상하고 명든 자리 마디마디 문지르며
 눈물은 타고 남은 간을 젖어 내렸다
 버들잎이 창살에 선뜻 스치는 날도
 도련님 말방울 소리는 아니 들렸다
 삼경(三更)을 세오다가 그는 고만 단장(斷腸)하다
 두견이 울어 두견이 울어 남원(南原) 고을도 깨어지고
 오! 일편 단심(一片丹心)

깊은 겨울 밤 비바람은 우루루루
 피칠해 눈 옥 창살을 들이치는데
 옥 죽음한 원귀들이 구석구석에 획획 울어
 청절(淸節) 춘향도 혼을 잃고 몸을 버려 버렸다
 밤새도록 까무러치고
 해돋을 녘 깨어나다.
 오! 일편 단심(一片丹心)

믿고 바라고 눈 아프게 보고 싶던 도련님이
 죽기 전에 와 주셨다 춘향은 살았구나
 쑥대머리 귀신 얼굴 된 춘향이 보고
 이도령은 잔인스레 웃었다. 저 때문에 정절(貞節)이 자랑스러워
 “우리 집이 꼭 망해서 상거지가 되었지야.”
 틀림없는 도련님, 춘향은 원망도 안했니라.
 오! 일편 단심(一片丹心)

모진 춘향이 그 밤 새벽에 또 까무러쳐서는
 영 다시 깨어나진 못했었다. 두견은 울었건만
 도련님 다시 띄어 한은 풀었으나 살아날 가망은 아주 끊기고
 원뿔 푸른 맥도 핵 풀려 버렸을 법

출도 끝에 어서는 춘향의 몸을 거두며 울다
“내 변가보다 잔인 무지하여 춘향을 죽였구나”
오! 일편 단심(一片丹心)

- 김영랑, 〈춘향〉 전문

〈춘향〉은 〈춘향전〉의 옥중 장면을 배경으로 시작되고 있다. 1연에서 춘향이 투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춘향의 모습은 여러거나 나약하지 않다.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추악한 변학도를 이 악물고 노력하는 춘향의 모습은 사육신의 비장한 절개를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춘향은 어린 소녀이다. 2연에서 비장하게 정절을 지키는 모습의 이면에 무서움과 서러움에 힘들어 하는 춘향의 모습이 있음이 제시된다. 그리고 이런 춘향을 논개의 혼이 어루만져준다. 논개는 임진왜란 당시 굳은 지조와 절개로 나라를 위하여 죽음까지 불사한 여인이다. 신념을 위하여 의지적으로 행동한 논개가 춘향을 어루만지는 것에서 춘향 역시 논개와 유사하게 사랑과 정절을 위하여 굳은 의지로 시련에 저항함을 빗대어 알 수 있다.

하지만 3연에서 한탄조가 흘러나온다. 사랑이 무엇이며 정절이 무엇이었을까 꽃다운 춘향이 옥에서 죽어야 하는지 물으며 사랑과 정절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며 춘향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탄식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춘향은 도련님 생각에 이를 견뎌내려 한다.

4연에서는 처절한 춘향의 상황이 그려진다. 몸은 상하고 명들었고 눈물은 타고 남은 간을 적시고 있다. 그러나 애타게 기다리는 도련님의 기척은 들리지 않았고, 깊은 밤 춘향은 단장(斷腸)한다. 두견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남원 고을이 깨어져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5연에서도 참혹한 춘향의 상황이 계속 그려지고 있다. 깊은 겨울 밤 비바람은 피칠된 옥 창살을 잔인하고 세차게 몰아친다. 옥에서 죽은 원귀들의 울음소리도 들린다. 몸과 마음이 극도의 절망 상태에 있는 춘향은 그만 혼절하고 해돋을 녘까지 깨어나지 못한다.

6연에서 마침내 믿고 바라고 눈 아프게 보고 싶던 도련님이 찾아온다. 어사임을 숨긴 채 상거지꼴을 한 도련님의 태도는 잔인하도록 능청스럽다. 자신을 위해 극한의 고난을 겪고 있는 춘향과 그녀의 정절이 자랑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춘향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그러나 춘

향은 원망도 없다. 보고 싶은 도련님을 죽기 전에 본 것만으로도 좋은 것이다. 춘향은 무보수, 헌신적인 사랑의 순교자, 일편단심의 화신¹²⁾으로 그려진다.

마지막 연에서 원전과 다르게 비극적인 결말을 맺으며 시는 끝이 난다. 시련을 극복하여 행복한 결말을 맺는 〈춘향전〉과 다르게 김영랑의 〈춘향〉에서 춘향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 이몽룡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만, 상황은 절대적인 좌절로 결말을 맺는다. 선행 텍스트인 〈춘향전〉의 행복한 사랑이 아니라 비극적 결말을 보임으로써 절절하고 슬픈 사랑을 고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연의 마지막 행에서 반복되는 ‘오! 일편 단심(一片丹心)’의 구절 또한 이루어지지 못한 춘향의 절절하고 안타까운 사랑과 죽음조차 꺾을 수 없었던 춘향의 강한 신념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영랑은 〈춘향〉을 통해서 춘향의 안타깝고 절절한 사랑을 노래했다. 한편 그 이면에는 시대의식 또한 녹아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김영랑은 순수 서정적 시세계를 지향하던 시인이다. 그러나 1930년대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라는 절망적인 시기 속에 있었으며 일제의 탄압이 갈수록 가혹해지던 시기였다. 김영랑은 시대와 민족의 아픔으로 기존의 시세계를 지향하던 모습과 달리 어두운 현실 인식의 시세계도 보이게 된다. 〈춘향〉은 후자의 시세계에 속하는 것이다. 춘향의 절절한 일편단심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중의적으로 일제강점기 속에서 ‘춘향’을 노래함으로써 민족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절절한 사랑은 〈춘향〉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강하고 격정적인 분위기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서정주의 〈춘향유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담담하고 아득한 분위기로 표현되기도 한다.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오월 단옷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12) 강경화, 「현대시에 나타난 춘향의 수용 양상」,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p.45.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닐 것입니다.

천 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어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 서정주, 〈춘향유문〉 전문

〈춘향유문〉은 옥중의 공간에서 춘향이 살아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고별사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유문(遺文)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처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화자인 춘향이 도련님(이몽룡)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시는 ‘안녕히 계세요. / 도련님.’이라는 작별 인사로 시작한다. 김영랑의 〈춘향〉에서 드러난 처절하고 절망적인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고, 어딘가로 떠나는 듯한 차분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렇게 간결한 사별의 전언(傳言)은 많은 말과 정서를 함축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듯하여 역설적으로 절절한 느낌을 불러온다.

2연에서 춘향은 차분하게 도련님과 첫 만남을 회상한다. 오월 단옷날 만난 도련님은 무성하고 싱싱하게 푸르렀다.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는 첫 만남의 기억 속의 매개체이며 죽어서도 그 기억을 소중히 안고 가겠다는 춘향의 마음이 짐작되면서 간절하고 애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춘향은 이별을 고하며 안녕히 안녕히 계시라는 말을 하는데 ‘안녕히’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데에서 이별의 슬픔, 망설임, 두려움이 함께 담겨져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3연에서 비로소 저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느

꺼지지 않는다. 저승과의 거리는 사랑의 깊이보다 멀지 않다고 표현하면서 죽음조차 자신과 도련님간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 생사를 초월한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신념을 말하고 있다.

이후 4연에서는 윤희적 세계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자신이 죽더라도 천 길 땅 밑을 흐르는 검은 물이 되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나는 구름이 되면 그것은 도련님 곁이 아니냐는 질문을 통해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조의 미세한 변화와 물음표를 통해서 춘향이 내면적으로 느낄 슬픔과 두려움을 알 수 있기도 하다.¹³⁾

마지막 연에서 물-구름-소나기의 물의 순환과정이 완성됨으로써 윤희적 세계관이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다. 춘향은 소나기가 되어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게실 도련님에게 다시 갈 것이다. 그리고 4연에서의 물음표는 느낌표로 전이되어 이별의 슬픔과 두려움은 마침내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전환된다.

〈춘향유문〉은 절절한 사랑을 담담하게 표현하였으며, 윤희의식을 통해 생사를 초월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했다. 그리고 작품에서 시인의 윤희관은 물의 순환과정을 통한 자연 현상과 결부됨으로써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고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¹⁴⁾ 이와 함께 사별을 앞둔 춘향의 마음 이면에 있을 슬픔과 망설임, 두려움이 작품에 함께 녹아 있어 구도적인 모습과 함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4. 춘향 모티프를 지니는 사랑 노래 - 이수익 〈단오〉, 김소월 〈춘향과 이도령〉

현대시가 담아낸 춘향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 사랑이 보일 수 있는 아름답고 성스러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었고 사랑에 대해 심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한편 현대시에는 춘향의 사랑의 모습을 그린 작품들뿐만 아니라 춘향의 사랑을 모티프로 하여 사랑의 정서를 노래한 작품들도 존재한다. 이수익의 〈단오〉와 김소월의 〈춘향과 이도령〉이다.

13) 이광호, 「박재삼 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32.

14) 신경림, 정희성, 『한국현대시의 이해』, 진문출판사, 1981, p.81.

음(陰) 오월에도 초닷새 수릿날엔
아내여, 그대는 춘향이가 되라.
그러면 나는 먼 숲에 숨어들어 그대를 바라보는
이 도령이 되리라.

창포를 물에 풀어 머리를 감고
그대는 열일곱, 그 나이 짝이 되어
버들가지엔 두 가닥 그냘줄을 매어
그대 그리움을 힘껏 밝아 하늘로 오르면,
나도 오늘 밤엔 그대에게
오래도록 긴 편지를 쓰리라.

하늘로 솟구쳤다 초여름 서늘한 흰 구름만 보고
숨어 섰던 날 보지 못한 그대의 안타까움을
내가 아노라고……
그대 잠든 꿈 길 위에 부치리라.

- 이수익, 〈단오〉 전문

〈단오〉는 〈춘향전〉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하여 아내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다. 1연에서 화자는 아내에게 그대는 춘향이가 되라고 말하고 자신은 이 도령이 되리라고 말한다. 음 오월의 초닷새 수릿날과 먼 숲에서 바라보는 배경을 통하여 아내와 화자는 춘향과 이 도령이 되고 애틋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2연에서 아내는 창포물에 머리감는 열일곱살의 순수한 춘향이 되고 화자는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함께 그대를 밝아 하늘로 오른다. 춘향과 이 도령의 모습이 겹쳐져서 서로를 그리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는 오늘 밤에 아내에게 오래도록 긴 편지를 쓰겠노라고 한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일상적이고 진솔한 표현을 통해 담아내고 있는 구절이다.

마지막 연에서 아내와 화자의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통한다. 춘향인 아내는 숨어 있던 이 도령인 화자를 보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고 화자는 그러한 그대의 마음을 안다. 그리고 화자는 아내를 향해 쓴 긴 편지를 아내가 잠든 꿈 길 위에 부치리라 하면서 작품은 끝이 난다.

〈단오〉는 부부 사이의 그리움과 사랑을 서정적이고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는 자신과 아내를 〈춘향전〉의 이 도령과 춘향에 빗대고 시의 제목이 표현하는 시간적 배경과 시에서 설정되는 공간적 배경을 〈춘향전〉의 대표적인 장면인 단옷날과 그네타는 공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렇게 하여 전통적으로 지고의 사랑을 상징하는 〈춘향전〉의 사랑을 부부의 사랑으로 아울러 표현함으로써 깊고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종결어미인 ‘-라’와 ‘-리라’의 사용을 통하여 고풍스럽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수익의 〈단오〉가 〈춘향전〉의 사랑을 모티프로 차용하여 부부 사이의 사랑을 노래했다면 김소월의 〈춘향과 이도령〉은 민족적인 사랑의 감정을 노래했다고 볼 수 있다.

평양(平壤)에 대동강(大同江)은
우리나라에
꿈기로 으뜸가는 가람이지요

삼천리(三千里) 가다 가다 한가운데는
우뚝한 삼각산(三角山)이
숫기도 했소

그래 옹소 내 누님, 오오 누이님
우리나라 섬기던 한 옛적에는
춘향(春香)과 이도령(李道令)도 살았대지요

이편(便)에는 함양(咸陽), 저편(便)에는 담양(潭陽),
꿈에는 가끔가끔 산(山)을 넘어
오작교(烏鵲橋) 찾아 찾아가기도 했소

그래 옹소 누이님 오오 내누님
해 돌고 달돌아 남원(南原) 땅에는
성춘향(成春香) 아가씨가 살았대지요

- 김소월, 〈춘향과 이도령〉 전문

1연과 2연에서는 마치 높은 산 위에 올라 삼천리 금수강산을 한 눈에 바

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위치적으로도 한반도 북쪽의 대동강과 한반도 남쪽의 삼각산은 한반도 중앙에서 비슷한 거리에 있어 고른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

3연에서 〈춘향전〉의 모티프가 제시된다. 화자가 우리나라 옛적에 춘향과 이도령이 살았었다고 말하는데, 춘향과 이도령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가 환기되면서 작품 전체적으로 서정적인 사랑의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러한 분위기와 아우러져 4연에서는 건우직녀 설화가 등장한다. 특이한 점은 함양과 담양의 지명 제시인데, 〈춘향전〉의 공간적 배경인 남원을 기준으로 각각 비슷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1연과 2연에서 남북으로 고른 시야가 드러났다면, 이 연에서는 동서로 고른 시야가 드러나고 건우직녀 설화의 오작교 모티프를 통해 만남의 분위기가 제시된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다시 춘향이 제시되면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작품은 끝을 맺는다.

〈춘향과 이도령〉에서는 우리 민족에 전통적으로 전승되는 〈춘향전〉과 건우직녀 설화를 차용함으로써 민족적·설화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또한 〈춘향전〉과 건우직녀 설화의 정서인 사랑과 만남을 환기하면서 서정성을 작품 전체적으로 두르고 있다. 그리고 민족과 국토에 대한 감정을 내포하고 있는 지명(地名) 시어를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누님에 대한 사랑은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사랑과 감정으로 승화되고 있다. 시에 내재하는 고전·설화적 요소는 시를 집단적 공유물로 환원시켜 민족의 심층 심리를 표상화하게 되는 것이다.¹⁵⁾

IV. 결론

고전은 그 이야기가 탄생할 때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였고 전승되는 과정에서 항상 때 시대와 함께 호흡하면서 모습을 변화해왔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장르로서의 모습과 풍부한 의미를 지닌 채 살아 숨쉬고 있다. 고전이 시대를 전승해 올 수 있는 이유는 고전에 담긴 정

15) 오세영, 『한국 낭만주의 시 연구』, 일지사, 1990, p.322.

서와 가치관이 민족에 조화롭게 수용될 수 있음이며, 폐쇄적으로 고정된 모습이 아니라 본래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대와 향유자의 요구에 따라 개방적인 모습으로 재창조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다.

〈춘향전〉은 고전이다. 설화의 이야기를 따라 판소리로 시작되어 소설로 정착되었고, 시대를 초월하여 민족에 공감되고 사랑받았으며 약 300여 년간 수많은 향유자들에 의해 수많은 장르로서 문학의 영역에서 대중 예술의 영역과 그 이상의 영역까지 끊임없이 재창조되었다.

〈춘향전〉이 고전으로서 시대를 넘나들어 계승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포악한 지배계층에 대한 저항, 바람직한 가치관의 제시로서의 정절, 신분 상승의 욕구와 신분제로부터의 해방 등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지만 근본적으로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이 이루는 사랑의 이야기이며 다른 주제 의식들 역시 사랑에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의 정서는 시대의 특수성을 넘어서서 전 시대를 보편적으로 흐를 수 있는 순수성과 휴머니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춘향전〉은 다면성을 지녔다. 전형적인 플롯 내에서 각 장면은 판소리의 특징으로 인한 독자성을 지녔고 이를 통해 개방적인 모습으로 재구성될 수 있었다. 또한 〈춘향전〉의 인물들 역시 다면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향유자의 요구에 따라 무리없이 적절하게 변용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주제 역시 다면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춘향전〉은 적극적으로 향유 및 재창조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었다.

시는 정서를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극적인 의미 함유 및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장르이다. 그리고 사랑의 정서는 한 마디로 형용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것이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긴 분량의 이야기도 부족하다. 시를 통해 사랑을 노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백 마디 말로도 부족하다면 단 한 마디의 말로 많은 것을 함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한 마디는 백 마디 말 이상의 정서를 극적으로 함유하고 전달할 수 있다. 많은 시인들이 〈춘향전〉의 사랑을 시로써 노래한 이유이며, 이를 통해 사랑을 노래하고 싶었던 이유이다.

사랑은 영원하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사랑은 이별을 만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긴 기다림을 경험한다. 그리고 때로는 강력한 시련으로 인해 절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사랑의 비장하고 숭고하며 성스러운 모습

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리고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빛나는 서정이며 민족적인 범위에서 빛나는 정서이기도 하다.

〈춘향전〉의 사랑은 정서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전승해오면서 민족과 시대의 수많은 사랑의 정서와 상호작용해왔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춘향전〉의 사랑은 어느 한 사랑과 함께 공감하고 있다. 모든 사랑은 아름답고 위대하다.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이 그랬으며 한명 한명의 사랑이 그러하다. 본 논문은 기초적인 수준에서 〈춘향전〉의 사랑과 현대시적 변주 양상에 대해서 탐구해보았지만, 부족함은 말할 것도 없다. 부족함을 보완하면서 보다 심층적인 수준의 탐구 과제는 이후의 연구에 맡기고자 하며 〈춘향전〉의 사랑이 현대시를 포함하여 다양한 양상으로서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향유 및 재창조될 것임을 확신하며 소망한다.

참고문헌

- 강경화, 「현대시에 나타난 춘향의 수용 양상」,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김동욱, 「춘향전 이본고(속)」, 『춘향전사본선집 1』, 명지대, 1977.
- 김석배, 「춘향전의 지평 전환과 후대의 변모」,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1993.
- 김수이, 「춘향전에 나타난 가치관의 이중성」, 『불멸의 춘향전』, 청동거울, 1999.
- 김주희, 「춘향전의 현대적 변용과 교육적 활용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준오, 『문학사와 장르』, 문학과지성사, 2000.
- 김홍규, 「춘향, 천의 얼굴」, 『춘향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박이정, 1993.
- 노현중, 「현대시에서 나타난 ‘춘향’ 모티프의 수용 양상 연구」,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박찬기, 「문학의 독자와 수용미학」, 『수용미학』, 고려원, 1992.
- 송숙자, 「춘향전의 현대적 변용과 그 의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신경림, 정희성, 『한국현대시의 이해』, 진문출판사, 1981.
- 오세영, 『한국 낭만주의 시 연구』, 일지사, 1990.
- 이광호, 「박재삼 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전영선, 「고전소설의 현대적 전승과 변용」,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최기숙, 「춘향전의 고전적 가치와 미학」, 『춘향전 연구의 과제와 방향』, 국학자료원, 2003.